

# 都市化에 관한 社會學的 準據들 정립을 위한 試論

= 概念, 促進要因, 形態를 중심으로 =

鄭 大 然

## 〈目 次〉

- |               |            |
|---------------|------------|
| I 序：研究目的      | IV 都市化의 形態 |
| II 都市化의 概念    | V 結 論      |
| III 都市化의 促進要因 |            |

## I 序：研究目的

사람의 거주지 유형으로서의 도시는 그 형성기원이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현대적 도시의 출현은 1700년대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현대적 도시의 출현과 발전의 요인으로서는 전체인구의 증가, 자연환경의 통제, 技術의 발전, 사회조직의 발전 등 4가지로 지적되고 있다.<sup>1)</sup> 이 요인들은 결국 産業化의 촉진요인들 이라고 보면, 현대적 도시의 출현과 발전은 산업 혁명 이후 산업화와 더불어 시작되었다고 하겠다.

都市에 관한 연구는 경제학, 지리학, 역사학, 정치학, 사회인류학 등 여러 분야에서 각자의 특수한 관점에 따라 접근되어 왔다. 社會學에서 도시를 파악하는 관점은 일반적으로 都市—農村 二分論과 連續體論으로 구분된다. 前者는 촌락사회와 도시사회를 두 개의 異質的인 혹은 對立的인 생활양식으로 이해하느냐 아니면 兩者의 차이는 단순히 量的인 것에 불과하고 兩者 공히 도시와 촌락의 특성을 다소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느냐의 입장이다. 그러나 後者는 촌락사회의 성격이 서서히 상실되고 도시사회의 典型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都市化 現象에 관심

1) O.D.Duncan, "Human Ecology and Population Studies", P.M.Hauser & O.D.Duncan (ed.), The Study of Population: An Inventory and Appraisal,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9, p.681.

의 촛점을 두고 있다.

이와같이, 社會學은 1930년대 초기부터 都市—農村 連續體論(urban-rural continuum)의 입장에서 都市化 문제를 다루었다. 이 입장은 곧 산업 이전의 도시(pre-industrial city)가 산업도시(industrial city)로 전환되는 과정과 유형이 도시화 연구의 기본적 촛점이었음을 의미한다.

L.Wirth, R.E.Park, R.Redfield 등이 그 대표적 학자들이다.

L.Wirth는 그의 유명한 "Urbanism as a Way of Life"(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44, July, 1938, pp.1—12)에서 인구의 크기, 인구밀도, 그리고 異質性이라는 3가지 요소를 도시의 핵심적 특징으로 규정하였다. R.E.Park는 Human Community(New York: Free Press of Glencoe, 1952)에서 도시의 사회구조에 인간생태학 이론을 도입시켜 도시화를 분석하였다. R.Redfield는 The Folk Culture of Yucátan(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41)에서 異質性和 孤立을 도시의 핵심적 특징으로 규정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들은 도시—농촌 연속체론의 입장에서 직접 혹은 간접으로 都市化 연구의 효시이다.

이들을 효시로 하여 경험적 조사방법론의 체계화와 더불어 도시화에 관한 연구가 특히 미국의 도시 사회학자들에 의해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사회학의 다른 대부분의 영역에서 그러하듯이, 都市化에 관한 연구도 그 관점이 광범위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都市化에 관한 서구의 연구들을 종합하여(비록 제한된 자료에 의거하고 있지만) 그것의 개념, 촉진요인 및 형태를 체계화 시킴으로써 도시화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종합적인 준거틀을 구성하고, 나아가서 앞으로 한국의 도시화의 체계적 연구를 위한 안목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Ⅱ 都市化의 概念

都市—農村 連續體論의 시각에서 촌락사회에 비한 도시의 특징을 규정하는 개념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都市性(urbanism)이고, 다른 하나는 都市化(urbanization)이다. 前者는 촌락사회에 비한 도시의 특징을 특정의 시점에서 파악하는 靜態的 개념이고<sup>2)</sup>, 後者는 촌락사회가 都市的(urban)으로 변동되어 가는 과정을 파악하는 動態的 개념이다. 이 변동은 복합적 요인에 의해 일어 남으로 都市化는 하나의 복합적 과정이다. 때문에 특정의 한 두가지 요소로 都市化의 개념을 定義한다는 것은 그다지 의미가 없다.

1930년대 이후 도시화에 관한 서구의 연구들을 중심으로 할 때 도시화의 개념은 크게 다음

2) L.Wirth, "Urbanism as a Way of Life", P.K.Hatt & A.J.Reiss, Jr.(ed.), Cities and Society, New York: The Free Press, 1957, pp.1—24.

의 4가지 측면에서 定義될 수 있다.

- 1) 行爲樣式 및 價値觀念
- 2) 社會經濟的 構造
- 3) 生態學的 構造
- 4) 人口의 要素

첫째, 行爲樣式 및 價値觀念의 측면에서 都市化의 개념은 文化 社會學者들에 의해 제시되고 있다. 이들은 都市의 사회적 특성이나 특수한 지역적 특성에 관계없이 都市人들의 思考, 價値志向, 혹은 行爲의 유형이 都市의 (urban)이라는 입장에 기초하고 있다.<sup>3)</sup> 그 대표적 학자로서는 W.L.Kolb, W.Firey, G.Sjoberg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文化的 價値觀念(cultural values)으로 도시의 사회적 및 생태적 조직을 설명하면서 都市化란 "인간의 行爲樣式이 都市의(urban)으로 되는 과정이다."<sup>4)</sup>라고 定義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S.A.Queen과 O.B.Carpenter도 도시화란 "都市居住의 생활양식이다"<sup>5)</sup>라고 정의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인구가 집중적으로 모여 특정지역이 都市로 형성됨으로서 전통적인 촌락사회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양상의 행위를 규명하는데 도시화의 개념을 찾고 있다고 하겠다. 즉 1차집단적 접촉과 同質性을 바탕으로 한 촌락사회가 인구의 증가와 異質性으로 인한 가치관념과 행위양식의 변화과정이 곧 都市化이다. 이들에 의하면, 도시적 행위양식 혹은 가치관념의 특징으로서서는 合理的 인간관계, 情緒보다는 功利를 중시, 비공식적 사회통제보다는 집단의 규범의 중시, 인격의 해체의 증가 등을 들 수 있다.<sup>6)</sup>

결론적으로 보면, 이와같은 측면에서 도시화의 개념을 찾는 입장은 인구 수와 밀도의 증가, 인구구성의 이질성으로 인간의 상호작용의 변화에 근거하고 있다고 하겠다.

둘째, 社會經濟的 構造의 측면에서의 도시화의 개념은 촌락사회 성원에 비한 도시인들의 행위나 思考보다는 직업구조, 산업구조, 분업, 직업의 전문화, 제층화 등의 차원에서 定義되고 있다.<sup>7)</sup> 이들에 의하면, 都市化란 "농촌(village)이 그 사회경제적 구조가 都市의으로 되고, 同

3) E.E.Lampard, "Historical Aspects of Urbanization", P.M.Hauser & L.F.Schnore(ed.), The Study of Urbanization,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1967, pp.519-554.

4) G.Sjoberg, "Comparative Urban Sociology", R.K.Merton, et al, (ed.), Sociology Today: Problems and Prospects, New York: Basic Books, Inc., 1959, pp.319-356.

5) S.A.Queen & O.B.Carpenter, The American City, New York: McGraw-Hill, 1953, p.29.

6) R.Redfield, "The Folk Societ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52, January, 1947, pp.293-308.

7) E.E.Lampard, op.cit., pp.519-520.

族이 市民으로 되는 계속적인 과정"이다.<sup>8)</sup>

이들의 관점은 결국 도시 내의 직업구조, 산업구조, 분업, 직업의 전문화 상태가 촌락의 성격을 벗어나는 과정을 도시화로 규정하는 입장이라 하겠다. 이 과정은 한 마디로 도시 내의 諸機能들의 分化를 의미한다. 이러한 기능의 분화는 상호 수평관계보다는 수직관계로 결합된 구조적 유형을 띠기 때문에 미분화 된 동질성을 바탕으로 한 촌락사회는 필연적으로 도시와는 相異한 사회경제적 구조를 나타내게 된다.

이들은 촌락사회가 이와같은 사회경제적 구조로 변동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는 농산물의 잉여, 힘의 중심적 작용, 전기와 교통의 발달 등을 들고 있다.<sup>9)</sup> 때문에 사회경제적 구조의 측면에서의 도시화는 도시의 발전과 관련된 모델의 準據들로서의 개념이라 하겠다.

셋째, 生態學的 構造의 측면에서의 도시화는 空間의 면을 중시하는 것으로써 도시기능의 지역분화, 集中化(concentration), 分散化(decentralization), 대도시권의 형성, 市街地의 확대 등의 차원에서 그 개념이 구성된다. 그 대표적 학자로서는 O.D.Duncan, J.P.Gibbs, W.T.Martin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환경, 인구, 사회조직, 테크놀로지 등 4가지 변인이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서 도시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sup>10)</sup> 1) 한 사회의 도시화의 정도는 분업에 따라 다르고, 2) 한 사회 내에서의 분업은 소비대상자들의 분산 정도에 따라 다르고, 3) 한 사회의 도시화의 정도는 기술발전의 정도에 따라 다르며, 4) 한 사회에서의 기술발전은 소비대상자들의 분산 정도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볼 때, 이들은 都市化의 의미를 인구와 도시기능의 공간적 분포의 측면에서 찾고 있다고 하겠다. 즉, 이들은 인구와 도시기능의 공간적 분포의 유형을 生態學的 構造라고 命名하면서, 특정도시의 생태학적 구조의 형성과정을 도시화의 과정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도시화의 과정을 生態學的 過程(ecological process)으로 설명하면서 그것의 주요과정을 集中化, 中心化, 分散化, 分離 등의 개념으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sup>11)</sup>

넷째, 人口的 要素로서의 도시화의 개념은 실제의 경험적 자료로서 가장 많이 다루어진 측면

8) W.S.Sayre & N.W.Polsby, "American Political Science and the Study of Urbanization", P.M.Hauser & L.F.Schnore (ed.), op.cit., pp.115-156.

9) National Resources Committee, "The Process of Urbanization: Underlying Forces and Emerging Trends", P.K.Hatt & A.J.Reiss, Jr.(ed.), op. cit., pp.64-77.

10) G.Sjoberg, "Theory and Research in Urban Sociology", P.H.Hauser & L.F.Schnore (ed.), op.cit., pp.157-189.

11) 鄭大然, 地域社會에 대한 人間生態學的 接近의 評價-生態學的 構造와 過程을 中心으로, 高麗大學 校 大學院 社會學科(碩士學位 論文), 1976, pp.57-64.

이다. 이 측면은 도시인들의 행위 유형이나 직업 및 산업구조는 전혀 무시하고 人口와 空間이라는 두 변수로서 그 개념이 정의된다. 대표적 학자로서는 K. Davis, H.H. Golden, N. P. Gist, L. A. Halbert, P. K. Hatt, A. J. Reiss, Jr. 등을 들 수 있다.

P. K. Hatt와 A. J. Reiss, Jr.은 일정한 지역 내의 人口나 資源은 원심운동(centrifugal movement)과 구심운동(centripetal movement)을 동시에 일으키고 있는데, 이러한 인구나 자원이 도시의 中心部를 향해 구심운동을 일으키는 과정이 도시화라고<sup>12)</sup> 定義하고 있다. 이어서 이들은 全体人口에 대한 도시인구의 비율이 도시화의 측정지표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sup>13)</sup> K. Davis와 H. H. Golden도 P. K. Hatt와 A. J. Reiss, Jr.과 동일한 견해를 갖고 있다. 즉 이들도 도시화란 전체 인구에 대한 도시인구의 비율이라고 정의하고, 특정 국가의 도시화의 측정방법으로  $U = \frac{P_c}{P_t}$  ( $U$ =도시화의 정도,  $P_t$ =전체 인구수,  $P_c$ =도시 인구수)라는 공식을 제시하고 있다.<sup>14)</sup> N. P. Gist, L. A. Halbert<sup>15)</sup> 등도 이와 동일한 개념과 동일한 측정방법으로 도시화를 접근하고 있다.

이 측면에서의 도시화의 접근은 가장 전통적인 개념이기는 하지만, 나라마다 인구 수의 측면에서 도시의 규정이 동일하지 않고, 또한 동일한 나라에서도 그 규정이 달라진다. 때문에 전술한 사회경제적 구조, 가치관념 및 행위유형, 생태학적 구조 등에 있어서 촌락사회의 성격의 탈피라는 차원에서 도시화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II 都市化의 促進要因

도시화의 촉진요인이 무엇인가의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다. 하나는 廣義의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狹義의 측면이다. 前者의 입장에서 보면, 도시화의 촉진요인은 도시 발생의 요인과 동일시 될 수 있다. 그러나 後者の 입장에서 보면, 형성된 도시가 성격이나 구조에 있어서 전통적인 촌락사회와 차이를 나타나게 하는 요인과 결부된다. 이것은 곧 都市—農村 連續體論의 관점에서 볼 때, 촌락사회의 성격과 구조가 점차 都市的으로 되게 하는 요인을 의미한다. 때문에 都市化의 촉진요인은 도시화의 개념에 대한 접근방법에 따라 달리 규정될 수

12) P. K. Hatt & A. J. Reiss, Jr. (ed.), op. cit., p. 79.

13) Loc. cit.

14) K. Davis & H. H. Golden, "Urbanization and the Development of Pre-industrial Areas", D. M. Heer (ed.), Readings on Population, Prentice-Hall, Inc., pp. 40-56.

15) N. P. Gist & L. A. Halbert, Urban Society, New York: Thomas Y. Crowell Co., 1948, pp. 41-42 참조.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주지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도시화에 관한 상기의 4가지 차원의 개념들 가운데 어느 것도 「일정한 지역으로의 인구의 집중」을 도시화의 시각에서 배제시키고 있지 않다. 바꾸어 말하면, 「인구적 요소」를 제외한 다른 3가지 차원에서의 도시화의 개념들은 공히 「일정 지역으로의 인구의 집중」을 전제한 후 그것으로부터 파생된 도시현상들의 측면에서 도시화의 개념을 定義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최초의 도시화의 근본적인 촉진요인은 「특정 지역으로의 인구의 집중」이라고 할 수 있다. 인구집중 이외의 도시화의 촉진요인은 크게 다음의 5가지로 大別될 수 있다.

- 1) 경제적 요인
- 2) 기술적 요인
- 3) 가치 지향적 요인
- 4) 사회적 권력
- 5) 생태학적 복합요인

**경제적 요인** : 경제적 요인에서 도시화의 촉진을 설명하는 입장은 기본적으로 도시란 財貨와 用役, 노동, 토지, 주택 등의 시장 복합체(market complex)라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이 시장 복합체가 생산, 분배, 소비의 제도적 메카니즘의 차원에서 촌락사회와의 차이가 곧 도시화의 촉진요인이라는 입장이다.

E. Shevky와 W. Bell은 "도시란 최근 서구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초적인 변혁의 원동력이 아니라, 경제적 확장 그 자체의 필연적 결과가 도시이다. 왜냐하면, 인구의 크기, 인구밀도 그리고 이질성은 도시의 범위를 설명하는데 큰 중요성을 갖고 있지만 도시화의 구조적 측면을 나타내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도시화란 전체 사회 속에서의 한 상황이기 때문이다"<sup>16)</sup>라고 했다. 또 이들은 1차산업에서 3차산업으로 변화함으로써 사회적 상호 관계와 상호 의존성의 범위가 증가하기 때문에 도시화가 촉진된다고 보았다.<sup>17)</sup> 이러한 범위를 증가시키는 구조적 지표(structural index)로서 技能(skill) 분포의 변화, 생산활동의 구조적 변화, 인구구조의 변화 등 3가지 요소를 들고 있다.<sup>18)</sup>

이와 반면, 미국의 국가 자원 위원회(National Resources Committee)의 미국의 도시화 과정

16) E. Shevky & W. Bell, Social Area Analysis: Theory, Illustrative Application and Computational Procedure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55, p.8.

17) Loc. cit.

18) Loc. cit.

에 관한 연구는 분업에 의하여 도시화가 촉진된다고 했다. 이들은 이 경우 분업을 3가지 수준——국가 간의 분업, 도시 간의 분업, 도시 내의 분업——으로 大別하여 도시 내의 분업을 도시화의 가장 중요한 촉진요인으로 보았다.<sup>19)</sup>

**기술적 요인**: 특정 지역이 도시화 되기 위해서는 주민과 주민의 문제 뿐만 아니라 주민과 자연환경과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자연환경의 통제 혹은 그것에의 적응을 위해 기술개발은 필요 불가결하다. 역으로 보면, 자연환경은 곧 인간의 기술이나 사회조직을 인간에게 조화시켜 주는 결정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 기술(technology)을 도시화의 중요한 한 가지 촉진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 때 기술이란 “도구나 에너지와 같은 물질적 자료를 이용하고 개발하는 지식”<sup>20)</sup>이라고 定義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은 커뮤니케이션 수단에서 교통수단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를 발전시킴으로써 그 결과 도시의 산업구조 및 도시 내의 여러 요소들의 공간적 질서화에 영향을 주어 도시화의 중요한 한 가지 촉진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기술은 산업이전의 도시가 산업도시로 변동하는 초기의 도시화 단계에서는 다른 어떤 요인들 보다도 중요한 요인이었으나 기술발달을 바탕으로 한 산업사회에서의 도시화의 촉진요인으로서 그 유용성 혹은 설명력이 감소되고 있는 것 같다.

**가치 지향적 요인**: 가치관(value)이 도시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는 특히 도시확대(urban expansion)의 설명과 결부될 수 있다. 이 견해는 도시의 토지이용(urban land use) 및 사회구조의 연구에 핵심적 결정요인으로서 가치관을 강조한다. 이렇게 보면, 이 관점은 도시 생태학적 관점과 부분적으로 중복되지만, 가치관을 간접적으로 도시화의 한 가지 촉진요인으로 본다는 점에서 생태학적 관점과는 차이가 있다. 가치관을 경제의 발달 또는 도시의 사회구조의 한 가지 결정요인으로 취급한 M. Weber의 관점이 그 대표적 예이다.<sup>21)</sup>

M. Weber 이외에 W.L. Kolb, W. Firey 등도 도시의 생태학적 구조의 한 가지 결정요인으로서 가치관을 중시했다. W.L. Kolb는 T. Parsons의 유형변수(pattern variable)를 모델로 하여 도시의 사회조직과 생태학적 조직을 설명하면서 도시화의 촉진요인으로서 가치지향(value-orientation)을 강조했다.<sup>22)</sup>

19) National Resources Committee, op.cit., pp.61-77.

20) A.H. Hawley & W.F. Ogburn, "Inventions of Local Transportation and the Pattern of Cities", Social Forces, Vol.24, May, 1946, pp.373-379.

21) M. Weber, The City, New York: The Free Press, 1968, pp.30-42.

22) W.L. Kolb, "The Social Structure and Function of Cities",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Vol.3, 1954, pp.3-46.

W. Firey는 다른 어떤 사회학자들보다도 도시의 생태학적 과정과 구조의 결정요인으로서 가치관(혹은 문화)을 강조했다. 그에 의하면<sup>23)</sup>, 도시의 물리적 환경과 인간의 중간에 가치관이 중요한 매개작용을 한다. 이 가치관이 어떠한가에 따라 도시의 토지이용, 거주지의 선정, 활동지역의 선정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도시화의 과정도 달라지게 된다.

이처럼, 가치관이 도시의 전체적인 사회조직뿐만 아니라 도시화의 과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지만, 도시화와 가치관의 관계가 과연 다른 요인들과 도시화의 관계처럼 정확하게 경험적으로 검증될 수 있는가의 문제 그리고 가치관을 사상, 지식, 신념 등과 같은 개념들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의 문제는 계속 연구의 과제라 하겠다.

**사회적 권력:** 사회적 권력(social power)을 도시화의 한 가지 촉진요인으로 본다는 것은 권력이 독립변수가 될 수 있다는 매우 특수한 관점이다. 여기서 사회적 권력이란 넓게는 한 사회의 전체적인 제도를 의미하고, 좁게는 특정 도시의 자체적인 행정력을 의미한다. 한 사회의 정치제도, 경제제도, 정치적 권력의 행사방법이 어떠한가에 따라 그 사회의 도시화의 과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쉽게 가정될 수 있다. 그리고 한 사회의 이러한 전체적인 체계의 테두리 내에서 특정 도시가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행정력의 양상에 의해 그 도시의 도시화 과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쉽게 가정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특정 도시의 도시계획 자체와 그 도시계획을 수행하는 행정력에 의해 그 도시의 도시화 과정이 달라진다.

이와같은 측면에서 도시화의 촉진으로서의 사회적 권력의 연구는 서구에서도 상대적으로 거의 없다. W.H. Form, M. Meyerson, E.C. Banfield, P.M. Hauser 등의 부분적인 연구가 있을 뿐이다.

W.H. Form은 사회적 권력을 도시의 구조형성 특히 토지이용 유형의 결정요인이라고 언급하면서 도시발전의 결과를 분석하는 도식으로서 사회적 권력이 도시화의 결정요인이라고 보았다.<sup>24)</sup> M. Meyerson, E.C. Banfield 등은 사회적 권력 관계의 한 양상으로서의 이익집단들의 경쟁의 결과 토지이용 유형이 결정되고 그 결과 도시화의 유형이 결정된다고 보았다.<sup>25)</sup> P.M. Hauser는 한 사회의 정치적 권력이 그 사회의 경제적 및 기술적 변혁의 주요 요인으로 보

23) W. Firey, "Sentiment and Symbolism as Ecological Variables", C.C. Shrag, et al. (ed.), Readings in General Sociology, Boston: Houghton Mifflin Co., 1964, pp. 103-108.

24) W.H. Form, "The Place of Social Structure in the Determination of Land Use: Some Implications for a Theory of Urban Ecology", Social Forces, Vol. 23, 1954, pp. 317-323.

25) 이 측면에서의 연구들로서는 다음과 같은 저서들이 있다. M. Meyerson & E.C. Banfield, Politics, Planning and the Public Interest, New York: Free Press of Glencoe, 1955. E.C. Banfield, Political Influence, New York: Free Press of Glencoe, 1961. F. Hunter, Community Power Structure,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53.



고 이 경제적 및 기술적 변혁이 다시 도시화의 과정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증거들에 입각하여 도시화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분석하였다.<sup>26)</sup> G. Sjoberg는 권력적 요인은 국가적 수준에서의 사회적 권력이고, 이것은 도시의 내적인 생태학적 구조뿐만 아니라 도시화와 커뮤니티의 사회조직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sup>27)</sup>

**생태학적 복합요인:** 생태학적 복합요인이란 도시화의 촉진요인을 한 가지의 결정론적 입장에서 벗어나서 복합적으로 접근하는 입장이다. 이 입장은 주로 도시 생태학자들에 의해 시도되었다.

O. D. Duncan과 L. F. Schnore는 환경, 인구, 사회조직 및 기술이라는 4가지 요인의 복합적 작용으로 도시화가 촉진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sup>28)</sup> 이들에 의하면, 이 4가지 요소들은 기능적으로 상호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변화는 다른 요소들의 변화를 초래한다.<sup>29)</sup>

생태학적 요인은 아니지만 G. Sjoberg도 역시 도시화의 촉진요인을 복합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그는 사회적 기능(social function), 문화적 가치관념(cultural value), 기술(technology), 권력(power) 등의 4가지 요인의 복합적 작용으로 도시화가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다.<sup>30)</sup>

P. K. Hatt와 A. J. Reiss, Jr. 도 역시 도시화의 촉진요인을 복합적 차원에서 다음의 5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농업생산의 혁명, 기술혁명, 상업혁명, 수송의 발달, 산업혁명 결과 나타난 인구혁명.<sup>31)</sup>

J. P. Gibbs와 W. T. Martin이 생태학적 복합요인은 지나치게 외적 환경을 중시하는 관점이라고 규정하고 O. D. Duncan과 L. F. Schnore이 제시한 4가지 요소 이외에 기술과 분업이라는 2가지 요소를 더 추가시키고 있다.<sup>32)</sup>

26) P. M. Hauser, "Some Political Influence of Urbanization", P. K. Hatt & A. J. Reiss, Jr. (ed.), op. cit., pp. 527-536.

27) G. Sjoberg, "Theory and Research in Urban Sociology", P. H. Hauser & L. F. Schnore (ed.), op. cit., pp. 157-189.

28) O. D. Duncan & L. F. Schnore, "Cultural, Behavioral, and Ecological Perspectives in the Study of Social Organiza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65, 1959, pp. 132-146.

29) Loc. cit.

30) G. Sjoberg, "Comparative Urban Sociology", R. K. Merton, et al. (ed.), op. cit., pp. 339-356.

31) P. K. Hatt & A. J. Reiss, Jr. (ed.), Cities and Society, New York: The Free Press, 1957, pp. 79-81.

32) J. P. Gibbs & W. T. Martin, "Urbanization, Technology, and the Division of Labour: International Pattern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27, 1962, pp. 667-677.

이렇게 볼 때, 생태학적 복합요인의 차원에서 도시화의 촉진을 설명하려는 입장은 단일 요인의 결정론적 입장보다 다각적인 도식이기는 하지만 도식 그 자체가 인간외적 요소에 치중하는 경향을 띄고 있다고 하겠다. 결국, 이들의 관점은 도시화의 본질적 문제를 공간적 분포의 차원에 일차적으로 기인시키는 경향이라 하겠다.

#### IV 都市化의 形態

앞서 언급한 바와같이 현대적 도시의 출현은 1700년대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1900년대 초기부터 자연환경을 개척하고 집단노동을 조직하는 인간의 능력 및 前項에서 상술된 여러가지 요인들의 복합적 작용으로 도시화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도시화는 지금까지 단일한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고 볼 수 있는가? 미시적 관점에서 보면 시대와 국가에 따라 도시화의 형태는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좀 더 멀리서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도시화의 형태는 어느 정도 규칙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규칙성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일이 곧 도시화의 형태에 관한 논의가 될 것이다.

이와같은 거시적 관점에서 도시화의 형태는 도시의 산업발달의 정도와 인간생태학적 준거틀이라는 2가지 측면에서 음미될 수 있다.

첫째, 도시의 산업발달의 정도의 측면에서의 도시화의 형태는 前産業的 都市化(pre-industrial urbanization)와 産業的 都市化(industrial urbanization)로 大別될 수 있다. 前産業的 都市化란 인간이 자연환경과 사회환경에 최초로 집단적 적응을 시작했을 때 나타나는 도시적 조직의 형성이라고 규정될 수 있다면,<sup>33)</sup> 이 형태의 도시화는 기원 전까지 소급될 수 있다. 그러나 근대적 의미로서의 도시화에 국한 시킨다면 “前産業的”이란 18세기 산업혁명 이전에 보편적으로 나타난 형태의 도시화라고 정의될 수 있다. 그리고 산업적 도시화란 산업혁명 이후 성취된 도시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유형의 도시화라고 규정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前産業的 都市化는 주로 미문화상태의 농업적 기반에 기초하여 생산활동이 아직 세분화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지역으로의 비농업인구의 집중화가 그 특징이라고 규정될 수 있다.<sup>34)</sup> 이 유형의 도시화는 근대도시가 형성되는 초기단계 혹은 현대의 저개발국이나 개발도상의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전형적인 유형이라 하겠다. 이러한 유형의 도시화는 그 사회의 전반적인 産業化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과잉 도시

33) E. E. Lampard, op. cit., pp. 519-554.

34) Loc. cit.

화(overurbanization)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다. 그리고 이 유형의 도시화 과정은 특정지역에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및 교육적 기능 등이 집중하는 양상을 띤다.<sup>35)</sup>

産業的 都市化란 광범위한 자연환경이나 사회환경에 대해 조직적 능력이나 기술을 통해 이룩한 유형의 도시화를 의미한다.<sup>36)</sup> 이 유형의 도시화는 산업이 발달된 선진국가에서 나타나는 것으로서 도시화보다는 산업화가 先行되는 경우이다. 이것의 특징으로서는 다음의 4가지를 들 수 있다.<sup>37)</sup> 첫째, 대규모의 도시성장은 산업화의 정상적인 과정의 일부이다. 둘째,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도시들은 전체사회의 활동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중심지로서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된다. 셋째, 산업사회의 여러가지 특성이 대도시에서 가장 잘 표현되어 있다. 넷째, 도시는 새로운 移住者들을 끌어들이고 적응시키며, 개혁을 촉진하고 활용하며, 뉴스를 외부에 확산시킴으로써, 국민들을 산업적 생활양식에 접촉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산업적 도시화의 이러한 특징은 대개가 도시 성장과정에서 보다는 그 규모에서 나타난다.<sup>38)</sup> 때문에 前産業的 都市化의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시 내의 노동의 분화가 더욱 복잡해지고, 調整과 統制의 기능이 증가 및 체계화 되고, 公式的 組織이 더욱 현저해지고, 도시공간의 이용이 더욱 分化되며, 사회이동이 더욱 고조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人間 生態學的 準據들에 의한 도시화의 형태는 도시 지역확장의 차원에서 구분될 수 있다. 그 대표적 모델로서 E. W. Burgess의 同心圓地帶 理論(concentric zone theory), H. Hoyt의 扇型地帶 理論(sector theory)와 C. Harris의 移核型 理論(multiple-nuclei theory)을 들 수 있다.

만약 이들의 이론을 도시 지역확장 내지는 도시의 공간적 구조의 개념과 결부시키는 것이 무리가 없다면, 인간 생태학적 준거들의 차원에서 도시화의 유형은 分散的 都市化와 巨大都市化로의 구분이 가능할 것이다. 이 구분은 도시기능들의 공간적 분포의 유형에 초점을 둘 때 더욱 타당성이 높아질 것이다.

도시화 현상을 대도시를 중심으로 고찰할 때 도시 기능들의 도심부제로의 집중화 혹은 교외로의 분산화가 동시에 일어나기 마련이다. 前者는 도시 기능들의 관리중추가 집중화에 의한 중심적 도시화라면, 후자는 원심적 도시화라고도 표현될 수 있다. 이러한 원심적 도시화, 즉

35) G. Sjöberg, "The Preindustrial City", S. Halebsky (ed.), *The Sociology of the City*,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73, pp. 43-53.

36) E. E. Lampard, op. cit., pp. 519-554.

37) C. Tilly, "The Forms of Urbanization", T. Parsons (ed.), *Knowledge and Society: American Sociology*, Voice of America, pp. 83-97.

38) Loc. cit.

분산적 도시화는 도시기능들의 분산과정에서 어떤 단계를 거치는데 그것이 곧 同心圓型을 취하느냐 아니면 扇型 혹은 多核型을 취하느냐의 문제와 연관될 수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원심적 내지 분산적 도시화가 계속되면 都心部의 인구나 기능들이 郊外로 분산되어 郊外化(suburbanization) 현상이 일어난다. 이러한 郊外化 현상이 계속 확대되면 원래의 도심부는 母都市로 되고 母都市를 벗어난 지역에 새로운 소규모의 도시들이 형성되는데 이러한 소도시들을 일반적으로 위성도시라고 한다. 이 경우 母都市와 위성도시들은 행정 구역적으로 相異한 지역단위이지만 도시 기능들은 서로 통합되어 분업적 양상을 띠게 된다.<sup>39)</sup> 이와같은 유형의 도시화를 巨大都市化(metropolitanization)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도시화의 유형을 前産業的 都市化—産業的 都市化 혹은 分散的 都市化—巨大都市化로의 구분은 異質性을 바탕으로한 兩分法的 구분이라기 보다는 연속체론적 구분이다. 왜냐하면 前産業的 혹은 分散的 도시화에서 출발하여 점차 産業的 혹은 巨大都市的 도시화의 방향으로 점차 그 유형이 변동되어 가기 때문이다.

## Ⅴ 結 論

본 논문은 사회학에서 도시화에 관한 연구들 그것의 개념, 촉진요인 및 형태의 측면에서 체계화 하여 도시화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종합적인 준거틀을 구성하고, 나아가서 앞으로 한국의 도시화 연구를 위한 안목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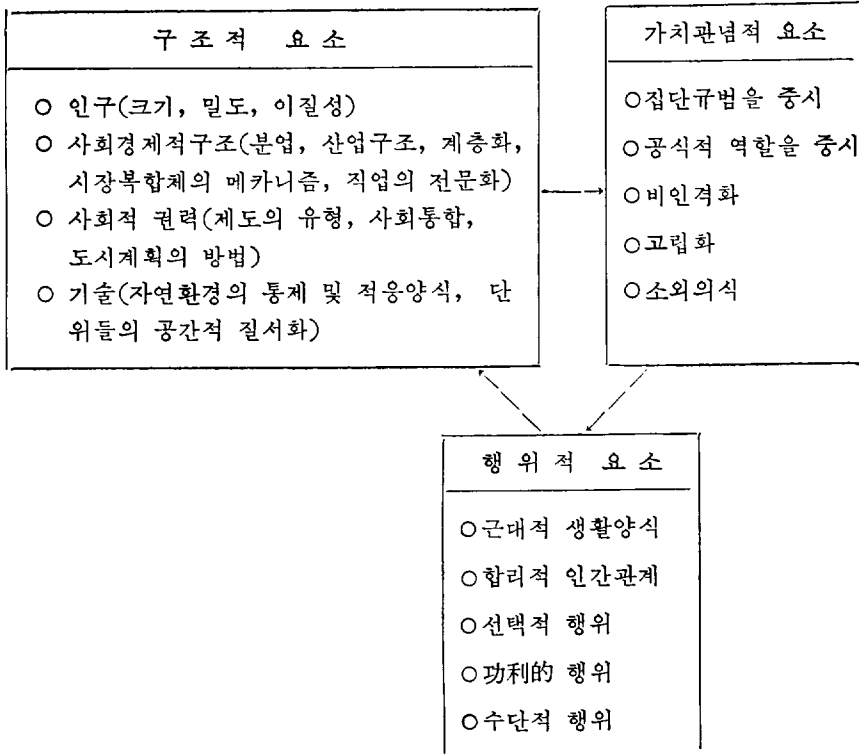
주지할 수 있었던 바와 같이,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都市性(urbanism)은 靜態的 개념인데 반해 都市化(urbanization)는 動態的 개념이다.
2. 都市化는 農村—都市 二分論보다는 連體論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고도로 도시화된 도시도 촌락의 전통적 성격이 내포되어 있고, 전통적 성격을 바탕으로 한 촌락사회도 도시적 성격을 부분적으로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3. 都市化의 개념은 行爲樣式 및 價値觀念, 社會經濟的 構造, 生態學的 構造의 人口의 要素 등 4가지 차원에서 定義될 수 있다.
4. 都市化의 촉진요인으로서는 경제적 요인, 技術的 요인, 사회적 권력, 가치지향적 요인, 생태학적 요인 등 5가지가 제시될 수 있다.
5. 都市化의 形態의 분류는 거시적 관점에서만 의미가 있다. 그 분류기준에 따라 다양한

39) M. Abrahamson, Urban Sociology, New Jersey : Prentice-Hall, Inc., 1976, p.205.

형태가 논의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산업발달의 정도와 생태학적 준거들의 측면에서 분류된다. 前者에 의하면 前産業的 도시화—産業的 도시화로 분류될 수 있고, 後者에 의하면 分散的 都市化—巨大 都市化로 분류될 수 있다. 도시화의 형태에 관한 이러한 분류도 역시 二分法的 분류라기 보다는 連續體論的 分類이다.

이렇게 볼 때, 도시화의 개념과 촉진 요인은 동일한 차원에서 동일한 준거를 내에서 논의될 수 있다. 왜냐하면, 도시화의 개념은 그것의 촉진요인을 개념적 구성요소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시화의 형태는 도시화의 촉진요인들의 복합적 작용의 결과이기 때문에 별도의 차원에서 독립적인 준거들이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이 관점에 무리가 없다면, 상술된 4가지 차원의 도시화의 개념과 5가지의 촉진요인은 3가지 차원의 구성요소로 통합이 가능하다. 하나는 구조적 요소이고, 다른 하나는 가치관념적 요소이고, 나머지 하나는 행위적 요소이다. 즉, 4가지 차원의 도시화의 개념 가운데 사회경제적 구조, 생태학적 구조, 인구적 요소는 구조적 요소로 통합될 수 있다. 행위양식 및 가치관념의 차원에서의 도시화의 개념은 가치관념적 요소와 행위적 요소로 세분화될 수 있다. 그리고 도시화를 촉진시키는 5가지 요인 가



40) B.J.L.Berry, The Human Consequences of Urbanization, New York: St.Martin's Press, 1973, p.15.

운배 경제적 요인, 기술적 요인, 사회적 권력, 생태학적 요인은 구조적요소로 통합될 수 있고, 가치지향적 요인은 가치관념적 요소로 볼 수 있다.

이 구조적 요소와 행위적 요소는 상호因果의 관계에 있다. 그러나 구조는 가치관념을 매개로 하여 행위에 영향을 미치고, 개인들의 행위의 집합 그 자체가 또한 구조이다.<sup>40)</sup> 라는 관점을 받아들이면, 도시화의 개념과 추진요인은 구조, 가치관념, 행위라는 3가지 차원의 요소로 구성이 가능하고, 이들의 상호관계는 다음과 같이(p.135 도표 참조) 도식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도시화의 형태의 분류기준인 산업발달의 정도와 생태학적 요소는 두 가지 모두 구조적 요소이다. 따라서 이 두 가지 분류기준을 組合시키면 도시화의 형태는 구조적 차원에서 다음 4가지 유형으로 구분 가능하다.

산업발달의 정도

생 태 학 적 적 조		前産業的 도시화	산업적 도시화
	거대 도시화	前産業的 거대도시화	산업적 거대도시화
	분산적 도시화	前産業的 분산도시화	산업적 분산도시화

도시화 형태를 이렇게 구분하는 데는 두 가지 의문점이 제기 된다. 하나는 모든 도시가 공통의 경로를 밟아 공통의 형태로 발전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다른 하나는 만약 공통의 과정을 밟는다 하더라도, 前産業的 혹은 巨大的 도시화의 과정에 있는 도시들이 앞으로 産業的 혹은 分散的 도시화의 과정을 밟을 것인가라는 문제이다.

도시화의 개념, 추진요인, 형태에 관한 위와같은 준거들은 저개발국과 개발국 간의 비교연구, 유사한 수준의 산업발달의 과정에 있는 국가들 간의 비교연구, 동일한 국가 내에서 도시들 간의 비교연구 등을 통한 경험적 연구에 의해 그 타당성이 검증될 수 있을 것이다.

— Summary —

Toward Development of Sociological Framework of  
Urbanization—with Special Reference to  
Its Concept, Factor, and Pattern

*Dai-yeun Jeong*

The concept of urbanization is probably one of the best known and most widely used terms in sociology and other social sciences. Its use in the academic world grows daily. It is also true that the use of the concept of urbanization is as chaotic as is widespread.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sociological framework of urbanization with special reference to its concept, factor and pattern, examining some leading theoretical orientations in the urban sociology.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would provide an useful theoretical background for the sociological analysis of urbanization in Korea.

The study results, although the reference are based on some leading perspectives on urbanization in western urban sociolog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concept of urbanization is a dynamic one as process, while urbanism is a static concept.
2. It might be useful that the urbanization is approached from rural-urban continuum rather than from rural-urban dichotomy. Because most of the cities, even though they are highly urbanized, have some traditional rural attributes, and any traditional rural communities also have some urbanized attributes.
3. The concept of urbanization can be defined in terms of four dimensions—value system and behavior, socio-economic structure, ecological Structure, and demographic aspect. Each of these perspectives has certain strengths and weakness. None of

them, in their present form, can be viewed as adequate.

4. It was found that urbanization would be promoted by five factors—economic factor, technology, social force, value-orientation, and ecological factor. These factors operate on the process of urbanization.

5. The pattern of urbanization can be traced from a macroscopic perspective. Its pattern might vary depending on the criteria of classification. It was found that normally two different criteria are applied to identify the pattern of urbanization. One is the degree of industrialization, and the other is the ecological structure. If one accepts this idea, the pattern of urbanization would be classified into two types, as follows.

By degree of industrialization : pre-industrial and industrial urbanization

By ecological structure : decentralization and metropolitanization

The perspective on the urbanization pattern is also the rural-urban continuum approach rather than the dichotomy.

What type of sociological framework of urbanization can be developed from these findings ?

1. It might be true that the concept and factor of urbanization can be discussed under the same framework. The major reason is that the concept of urbanization should be developed from the factors considered to promote urbaniz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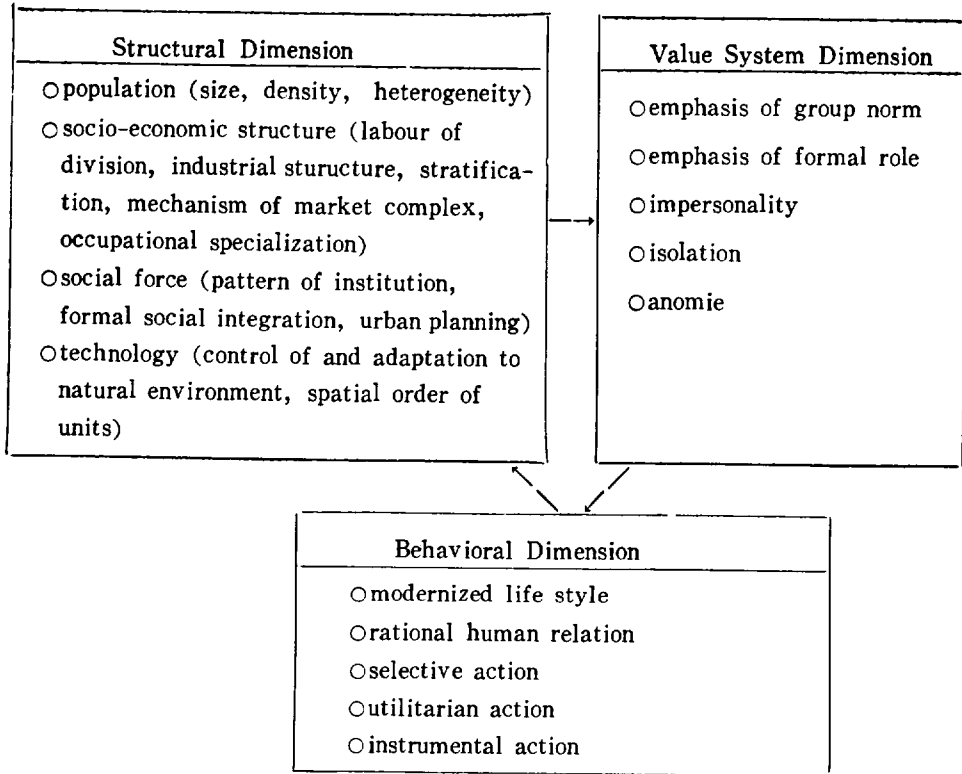
2. However, it would be desirable that a different perspective from that of the concept and factor of urbanization would be applied to develop the framework of urbanization pattern. Because the urbanization pattern is a result produced from the operation of the factors on the urbanization process.

3. If the statement described above is acceptable, the urbanization from its concept and factor can be understood as a dynamic process of three dimensions—structural, value system, and behavioral level. Out of the four kinds of concepts of urbanization described above, value system and behavioral aspect can be subdivided into value system and behavioral level, and the remaining three can be combined into the structural level. Among five kinds of promotion factors, value-orientation is a dimension of value system as the conceptual level, the remaining four are reduced to



the structural level.

4. In addition to this assumption, if we accept it as being true that the structure operates on behavior through mediation of value system, and is itself aggregation of individual behavior, the concept and factor of urbanization can be approached from three dimensions. And, the relationship among them can be diagrammed in the manner of the figure below.



5. Finally, for the pattern of urbanization, if two criteria applied are combined, four patterns are available, as follows.

		degree of industrialization	
		pre-industrial	industrial
ecological structure	metropolitani- zation	pre-industrial metropolitani- zation	industrial metropolitani- zation
	decentraliz- ation	pre-industrial decentraliz- ation	industrial decentraliz- ation

Such a classification of urbanization pattern raises two questions. One is referred to whether most of the cities follow the same development process and pattern. The other question is whether the pattern of pre-industrial urbanization and/or metropolitanization inevitably follow that of industrial urbanization and/or decentralization.

The sociological framework of urbanization outlined above is on the hypothetical level. It is supposed that its validity be examined on the basis of the empirical comparative study between developed and under developed country, between the countries which is on the similar level of industrialization, and/or between cities within a country.